

포커스-e기업

글로벌 종합광학솔루션 기업을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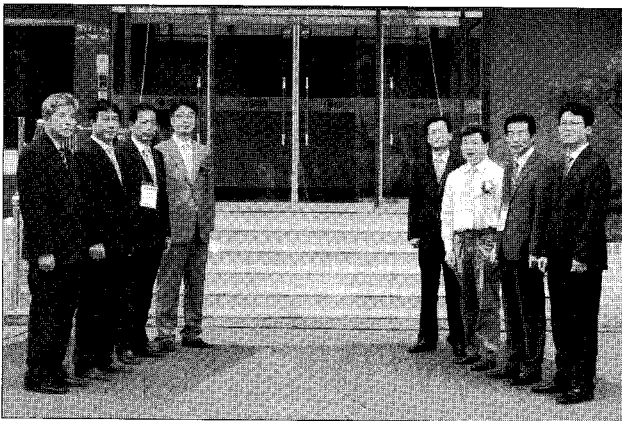
파워옵틱스(주) 신사옥 이전식 가져

취재 | 박지연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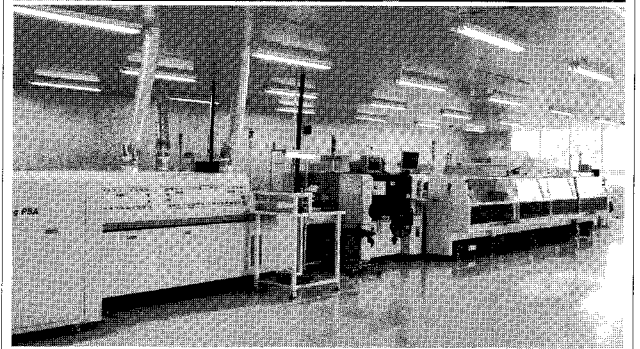
광학렌즈 및 광응용제품 개발업체인 파워옵틱스(대표·정수호, p-optics.co.kr)가 지난 8월 28일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신사옥 이전 개업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파워옵틱스의 정수호 대표와 이강원 사장을 비롯하여 중국 써니그룹의 왕원지엔 동 사장, 삼성테크윈 정한수 상무, 유성정밀 김정기 사장, 에이옵틱스 김부태 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 등 국내외 협력사, 고객사, 주주 대표, 협회 대표, 관계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파워옵틱스의 힘찬 출발을 다함께 축하해주었다.

2004년 6월 설립 이래 5년여간 사업을 진행해온 파워옵틱스는 짧은 역사임에도 설립 2년여 만에 광학렌즈모듈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핸드폰용 카메라 줌렌즈 및 각종 광응용 제품 개발에 앞장서 온 R&D전문업체이다.



▶현관 제막식에 앞서 기념촬영 광경(사진 왼쪽부터 파워옵틱스 이강원 사장, 유성정밀 김정기 사장,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 삼성테크윈 정한수 상무, 파워옵틱스 정수호 대표, 써니그룹 왕원지엔 동 사장, 에이옵틱스 김부태 사장, 파워옵틱스 이상걸 상무)



▶잘 다듬어진 생산라인 등 신사옥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내외민들의 모습

특히 줌렌즈의 소형화를 통해 카메라의 슬림화를 이끌어 내는 등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에만 월 10만대 판매와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초 중국 씨니가 100% 출자 투자하여 설립한 외자기업인 씨니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이 회사는 씨니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소재 임대건물에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안양시에 신사옥을 지어 이전하게 된 것이다. 씨니코리아와 파워옵틱스의 합병은 씨니의 안정적인 제조기반과 파워옵틱스의 탁월한 R&D기술력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세계 최초 핸드폰용 5메가 3배 줌 렌즈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이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력을 축적하게 된 파워옵틱스는 이외에도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감시카메라, 모바일폰용 렌즈모듈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을 비롯한 해외 바이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차세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HUD와 나이트 비전(Night vision) 광학계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대형 LED TV 용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렌즈 설계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광학모듈업계 1위를 달성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중장기 목표이다.

따라서 금번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제품 설계 개발에서부터 생산 및 최종조립라인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면서 종합광학솔루션 기업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파워옵틱스의 정수호 대표는 “파워옵틱스는 부단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고객사와 협력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열악한 한국 중소광학산업의 분수령 및 시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고객의 가치창조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임직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수호 대표



▶ 신사옥 이전기념식이 있기까지 회사 양력을 낭독하는 이강원 사장



▶ 중국에서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씨니그룹의 왕원지엔 동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파워옵틱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내외빈이 기념떡을 절단하고 있다.